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7호 [주제 제2591호]

주제 109
(2020)년 4월
25일
토요일
음력 4월 3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자력갱생으로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간다

공화국의 발전행로에서 언제나 비약의 원동력으로, 승리의 기치로 되어온 자력갱생.

세기를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앞길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힘차게 개척하는

공화국인민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강위력한 정신적 지주를 영험한 전통으로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 본다.

타 남의 나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어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조선을 구원할 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유격주에는 애당초 병기창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위력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라고 사후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원동력이였으며 《창해의 일숙》이 《동아의 맹주》를 라승한 항일신화를 창조한 중요한 정신적요인이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백두산대학》을 찾는 답사자들이 손이 얼어붙고 귀부리를 도려내듯 한 강추위속에서 빠져리게 절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항일투사들의 불같은 혁명열, 애국열과 함께 모든것을 자체로 해나간 자력갱생,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다.

적이라는 것이다. 당창건과 중요산업국유화, 토지개혁, 정규부력건설 등 민족자력의 정신으로 이루어 놓은 세기적변혁이 해방된 조국땅우에 국가건설의 주춧돌이 되었다.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된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의 엄숙한 선포, 그것은 동방에 태어난 첫 자족독립 국가의 힘있는 고고성이었으며 새 조선의 자주적번영의 출발을 알리는 금지높은 선언이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오늘도 역사의 땅 강산을 잊지 못한다. 세계적인 정치풍파가 일어나고 지배주의,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대오안에는 동요분자, 우연분자들이 본색을 드러내던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해였다.

명한 기자는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할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사조마냥 재더미속에서 소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조선의 복구와 건설일 것이다.》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모란봉기슭의 만수대에 세운 천리마동상은 시련에 굴복하여 남을 바라보면 노예로, 자체로 일떠서면 기적의 창조자, 승리자로 된다는 조선혁명의 철리를 만사람에게 새겨주고 있다.

자력의 철리를 밝혀주시어

나라길에도 시작점이 있듯이 혁명의 길에도 출발점이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 이는 간고한 항일의 나날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조선의 위대한 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이 나라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앞당겨오는 자력자강의 철리를 밝히시고 영도의 전기간 드림없이 실천해오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더불어불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던지 압록강을 건너셨던지 어버이수령님, 너무도 어리신 나이에 식민지노예로 고통받는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걸머지고 누구나 감당하지 못할 무수한 사신의 고비들을 넘고 헤쳐오는 과정에서 그이께서 진리로 체득하신것은 무엇이었던가.

혁명은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자주 의 사상이요 자력독립의 의지였다.

조선혁명의 닦은 이렇게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높이

사대주의를 불사하며 거족적인 전진항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카를프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는 강도 일제에게 모든것을 강탈당한 겨레에게 민족재생의 진로를 밝혀준 서광이었고 인류해방위업의 새시대를 알리는 력사의 조종이었다.

감동도 새롭다. 정규군의 지휘나 국가적 후방도 없이 발발까지 무장한 최후의 강도 일제와 정면대결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생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긴 당부가 있다.

조선혁명기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연길폭탄》을 잊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이다.

일제에게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었던 《연길폭탄》. 망치와 줄칼, 풍구 등의 도구밖에 없었던 백두의 원시림속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졌다는데 의의도 있지만 그에 비할바없는것은 유격대와 인민들이 자기의 거대한 힘과 슬기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자기 운명을 능히 자체의 힘으로 개척할수 있다는 신념을 실천을 통해 간직하게 한 정신력에서의 일대 전환의 계기였다는데 있다.

그때를 회고하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만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남의 나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어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조선을 구원할 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유격주에는 애당초 병기창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위력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라고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위력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라고 사후하시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이렇게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자체로 무기로 수리하고 크고 작은 작전을 만들어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재봉기바늘이 부러지면 못바늘을 줄칼로 갈아 제기된 군복생산을 보장하고 의료기기와 약도 자체로 만들어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그것은 민족해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에서 처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태양이시다.

자력갱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원동력이였으며 《창해의 일숙》이 《동아의 맹주》를 라승한 항일신화를 창조한 중요한 정신적요인이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백두산대학》을 찾는 답사자들이 손이 얼어붙고 귀부리를 도려내듯 한 강추위속에서 빠져리게 절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항일투사들의 불같은 혁명열, 애국열과 함께 모든것을 자체로 해나간 자력갱생,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다.

적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정치풍파가 일어나고 지배주의,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대오안에는 동요분자, 우연분자들이 본색을 드러내던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무소 강산을 찾으시어 강대 1만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하신 열렬한 호소는 강선의 노동자들의 세운 피를 뚫고 하였다.

천리마의 불화는 강선에서 타올라 6만년력의 분피 앞면기에서 12만년의 강재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고은 나래에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기》라는 구호가 힘차게 날아가는 속에 《승리-58》 자동차, 《천리마》 호 트럭도, 《붉은기》 호 전기기관차를 비롯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앞을 다투어 생겼으며 그 나래에 남들이 백년 또는 수백년이 걸려서야 도달할수 있었던 공화국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에 하는 짧은 기간에 완수하는 력사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한 저

명한 기자는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할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사조마냥 재더미속에서 소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조선의 복구와 건설일 것이다.》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모란봉기슭의 만수대에 세운 천리마동상은 시련에 굴복하여 남을 바라보면 노예로, 자체로 일떠서면 기적의 창조자, 승리자로 된다는 조선혁명의 철리를 만사람에게 새겨주고 있다.

1970년대 - 1980년대의 평양번영기도 이렇게 태어났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약적인 속도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며 수도 평양을 주제조선의 상징으로 훌륭히 변모시킨

강생의 자랑찬 열매들이 날에 날마다 주렁주렁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정녕 그 사랑, 그 믿음은 자강력의 무궁한 원천이며 강국이라는 거목의 굳건한 뿌리이다.

조선의 모습에서 세계는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로 무엇인가 이룰수 있다고 보는 판점이 결코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요인을 자원이나 자금을 비롯한 물질적부에만 국한시켜 따지는것이 조선에는 맞지 않는다는것을 알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공화국은 또다시 큰결실을 내질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겨가는 력사적전환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나갈때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호소는 나라가 떨쳐나섰다.

일마진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서 울려 퍼진 우렁찬 발파소리는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자력자강,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기성과 힘의 장엄한 선언이다.

자력갱생으로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공화국의 앞길을 우리의 밝은 미래가 펼쳐졌다.

김영범

부강조국건설도 자력의 기치밑에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가 사람들에게 주는 깊은 여운이 있다.

그것은 세대의 준비를 다 맞으면서 혁명가로서, 정치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천만고생을 다 이겨내며 빈터우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주신 김일성주석에 대한 뜻 잊을 수 없다.

노래에도 있듯이 모든것이 빈터에서 시작되었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지고 새 조선을 일떠세워야 하는 어려운 과업도 보잘것 없는 경제와 빈 국공에서 시작되었고 적대세력들이 100년이 걸려도 다하는 일에서 못할것이라는 편견을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사업도 별다른 한장성한것이 없는 재더미와 폐

허에서 시작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 3년만에 공업총생산액 2.6배장성을 예견하여 세운 5개년계획, 아직은 나라의 형편이 추지지 못한 속에서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이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위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힘,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여 뚫고나가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알수 있었으며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건설된 년대도 다르고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그 모든것이 자체의 힘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자력갱생의 실천적증

승리의 영원한 기치

위대한 계승을 떠나 위대한 전통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거러들의 불빛이 꺼지고 공장들이 숨죽여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력갱생이 우리의 생명이며 자력갱생에 승리의 진로가 있다는 철리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심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강행군길이 있어 공화국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불패의 사회주의나라로 되었다.

백두밀림의 항일전쟁에서 마르치고 시련의 폭풍우속에서 검출된 자력갱생은 오늘 공화국특유의 국공으로, 창조본래로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화려한 날들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 밑에 세인을 경탄시키며 기적적승리를 다발적으로, 량발적으로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로정이였다.

전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

창조형으로 린이어 터쳐올린 주제병기들의 장엄한 불퇴성, 조국방 방방포곡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는 인민의 행복의 초라함...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조선은 세월을 앞당기는 비약적인 속도로 나라의 자주권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강대한 힘을 비축하였으며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해가고 있다.

어제 다 헤아릴수 없으리라. 온 나라 인민을 찾고있으시며 이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는 안목을 띄워주시고 남을 따라가게것이 아니라 새것을 창조하였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돌진하는 당력과 배짱도 안겨주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앞날을 락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기쁘다고 하시며 자력갱생의 정신을 기수처럼 세우시는 그이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어 이 땅에는 자력

조국소식

콘크리트치기 50%계선 돌파, 골조공사 동시에 추진 평양 종합병원 건설장에서

대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웅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대달리는 일군들과 지휘관,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기초콘크리트기설적이 50%계선을 넘어섰으며 골조공사도 동시에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건설현장사무에서는 공정별작업이 립체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력량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세멘트, 골재, 철근, 내수합판 등 건설자재를 선행시켜 작업능

률을 최대한 높이는것과 함께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전개해나갔다.

일군들과 지휘관들은 건설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는 한편 앞선 공법과 능률적인 건설설비, 기공구들을 도입하여 노력을 절감하면서도 콘크리트치기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적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군인건설자들이 설계와 공법의 요구를 정확히 준수하면서 말은 공사과제수행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그들은 혼합기, 압송기

등 설비들의 대수를 늘이는 것과 함께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혼합물보장을 적극 따라세웠다.

건설장에서는 공사과제수행을 구체적으로 총화 분석한데 기초하여 골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혼합기차들을 만나기 위하여 정조하여 콘크리트치기 속도를 순간도 늦추지 않고 있다.

건설자들은 기초공작을 일정보다 훨씬 앞당겨 끝낸 기세드높이 기초콘크리트치기에서도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 열의에 넘쳐 과감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8돐 경축행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15일 김일성문학고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중국합일혁명령사 장을 화가주, 김일성문학고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게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작품에 최수봉 제1부의장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일군들이 축하했다.

파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14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축모임에는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본부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성기사 《만민을 매혹시킨 회색의 정치권력》가 랑독된 다음 태양광을 맞으며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축하편지가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8돐 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최수봉 제1부의장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은 조국인민들이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있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벅찬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8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태양을 높이 모신 태동운의 날이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자주시대의 령명을 안겨준 력사적사건의 날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회고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위대한 수령님들

과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해외동포들 동사상을 총직하게 만들어 나가는 애국조직으로 튼튼히 꾸려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이어 조선에 출생화 《민족의 태양》 제1부 《준엄한 시련》을 깊은 감명속에 감상하였다.

한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 연변지구협회와 김일지구협회를 비롯한 여러 조직에서도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인간, 인민의 아버이의 고결한 행복관

인민의 행복을 기쁨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보람으로 여기시며 위없는 현지도도길을 여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을 여러 나라 출판 보도들이 칭송하였다.

우간다전국학생운동기관지 《파블라코 렌즈》는 이렇게 전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은 한마디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생이었다.

그이께서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걸으신 현지도도로서의 총연장길이는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돈것과 같은 57만 8 000여km에 달한다.

이 나날들에 주석께서는 일요일과 명절날 지어 자신의 생신날마저도 조국과 인

민을 위한 길에 고스란히 바치시였다.

네팔인테레트잡지 《네팔 투데이》, 캄보자의 신문 《노코르 롬 데일리》와 에프엠 105방송,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크》는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은 많아도 김일성주석처럼 자신을 다 바쳐 인민의 행복을 기우어오신분은 력사적 전무후무하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휴식이 있을수 없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에서 찾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것이 주석께서 지니고계신 행복관이었다고 보도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현지도도는 인민들과 고티를 같이하시며 모진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는 애민헌신의 로정이였

다고 하면서 에티오피아신문 《호출》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현지도도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위대한 인간, 인민의 아버이의 혁명명도방식이였다.

한평생 인민을 찾아 현지도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어있을 것이다.

로씨야의 주제사상연구조직들은 인터넷포럼에서 김일성주석의 현지도도를 조국의 방방포곡 그 어디나 김일성주석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다. 김일성주석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결출한 수령이시였지만 늘 평범한

인민들속에 계시었다, 그의 인민사랑에 의해 조선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라이의 《삼성일보》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말을 들어보았거나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있는 나라를 본적이 있는가. 그러한 말을, 그러한 현실을 나는 조선에 가서 직접 듣고 체험하였다.》

이것은 언제인가 조선을 방문하였던 유럽의 한 사회활동가가 기자담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조선에서는 인민을 귀중한 존재로, 하늘처럼 여기고 있다.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로 여기신분은 다름아닌 김일성주석이시다.

그이께서 발포하신 법령들은 인민적법령이었고 조선에서 실시된 사회정책들은 모두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인민적시책들이였다.

이런분이시였기에 국호나 군대의 명칭도, 수많은 창조물들도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빛나게 해주셨다.

김일성주석의 이민주의 사상, 이민주의 력사는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이어졌다.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나가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오늘 조선은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나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